

한국산업은행 취업 수기

영어영문학과 박○○ (2022. 02. 졸업)

기본 스펙	평균 평점	3.7
	외국어 성적	TOEIC 800
대학 생활 내용	인턴 또는 현장실습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턴 (21년 08월~21년 12월)
	봉사활동	검정고시 교육 멘토링 95시간
	자격증	AFPK , 한국사 1급
	기타	교내 경영대 동아리 Value 1년 활동

Step1. 대학생활

처음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2학년 1학기까지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후 입대를 하였습니다. 군 복무 후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금융 분야를 학습하고 싶어 경제 및 경영학과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큰 재미를 느꼈고, 늦었지만 4학년 1학기에 더욱 깊은 학습을 위해 경영대 금융학술 동아리 'Value'에 입단하였습니다.

비전공생으로 동아리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학습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동아리 선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1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검정고시 교육 멘토링 봉사활동을 약 100시간 하였고, 3학년에 1년간 학과 학생회에서 부회장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약 4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자소서를 여러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고, 면접에 갔을 때 단체 활동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허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활동은 금융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 활동 후 진로 방향을 금융권으로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목표 의식은 취준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 산업군 및 기업을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tep2. 필기 준비

제가 입학하게 된 KDB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금융공기업입니다. 보수적인 측면과 안정성 측면 2가지 모두를 고려하다 보니 목표를 금융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준비하

였습니다.

금융공기업은 크게 A매치와 B매치로 나뉩니다. A매치는 시험이 서술형 및 주관식으로 나오는 기관이 대부분이며 출제 범위가 B매치에 비해 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습니다. B매치는 객관식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특성상 일반 공기업보다 높은 필기 수준과 금융 논술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고 NCS는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저는 경영 직렬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반경영+ 중급회계 + (고급회계) + 재무관리] / [금융 논술]을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타 기관을 준비하였다면 고급회계를 공부하지 않았겠지만, 산업은행은 고급회계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 추가로 공부하였고, 회계와 재무를 방점으로 두고 CPA 1.5차 수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일반경영

CPA 전수환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이후 김윤상 강사의 객관식 경영학 교재를 통해 보충하였고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였기에 시험 막바지엔 핵심적인 이론은 적을 수 있도록 암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스펙트 이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에 대비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회계

CPA 김재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회계의 경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에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개를 꾸준히 해주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 원초적인 분개로 접근하는 대응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틀리는 문제는 노트에 따로 분개를 정리해 놓고 자주 봐주면서 까먹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 회계를 공부할 때 오정화 1000제를 통해 기초적인 회계 문제 출제 방향을 익혔고, 이후엔 CPA 기출베스트라는 교재를 통해 심화 내용을 추가 학습했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무형자산 정의 3가지 / 리스부채 재측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암기하였습니다.

#재무관리

CPA 김종길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2차 심화 강의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재무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단원마다 연결고리를 찾아 최대한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매치 금융공기업은 재무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시험에 맞춰 깔끔하게 풀이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

하는 법과 서술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논술

처음에는 [이것이 금융논술이다]라는 책을 통해 금융논술을 준비하였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논술 첨삭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달간 매주 1회 논술 주제에 맞는 논술문을 작성하고 첨삭 과정을 통해 글 구조를 다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후 관심 기사와 금융 이슈 정리를 통해 나올듯한 주제를 10가지 정도로 압축하였고, 이에 대해 저의 의견 개진과 최근 상황들에 대해 정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제가 준비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 변화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나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첨삭 논술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 금융논술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Step3. 면접 준비 & 후기

한국산업은행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총 2번의 면접을 시행합니다. 1차 면접에는 [직무 면접, 팀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총 4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으로 시행됩니다.

#직무면접

- 실무진 면접으로 자소서 기반 질문과 기업금융에 대한 심화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으로는 본인이 한 산업을 선택하고 그 산업의 CEO로서 산업은행의 정책입안자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해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금융 및 금융공기업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에 해당 기관의 역할과 본인이 산업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팀 면접

- 팀 면접은 대비가 어렵고, PT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느꼈습니다. 입장하면 면접관 3명이 앞에 앉아 계시고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추후 40분간 팀원끼리 주어진 주제를 토대로 회의 및 노트북을 통해 PPT 제작을 하여 5분간의 발표 준비를 끝마쳐야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산업은행의 게임 산업 육성방안]이었습니다.

이 또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금융을 운용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안 및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팀 면접이기에 팀원들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PT 면접

- 제가 받은 주제는 [ESG 경영 도입과정에서 금융의 역할]로 ESG는 최근 모든 산업에서 큰 화두이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PT 면접은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에 PT 작성도 중요하지만, Q&A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PT를 작성할 때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작성하여 면접관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기 보단, 쉬운 내용 이더라도 본인이 앞의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면접

- 토론 면접은 말을 확실한 본인 의견 정리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보단,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해주면서 저의 다른 관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토론 면접에 임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플랫폼 산업 규제 찬성/반대]로 반대 입장을 배정받았습니다.

전 지속된 산업 규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기업 유출은 장기적 손해이기에 비 플랫폼 산업의 플랫폼화를 이끄는 방향이 더 올바르다는 의견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2차 임원진 면접

- 임원진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방식은 4대4 면접으로 공통 질문을 던지고 이후 꼬리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하기보단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지원자들의 성향과 가치관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고, 그에 맞는 자기 경험 및 가치관을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Step4. 마지막 정리

어떤 경험이든 본인이 풀어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대외활동도 물론 좋지만, 교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내에서 이와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이 열리면 꼭 참여하셔서 경험을 쌓으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